

					I-C-3
제목	국문	의약분업 전후 의사 처방의 변화양상 분석			
	영문	Comparative Analysis of Physicians' Prescribing Patterns after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Practice			
저자 및 소속	국문	장선미 1, 한은아 1, 문옥륜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,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			
	영문	Sunmee Jang1, Euna Han1, Okryun Moon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1,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, Seoul National University2			
분야	보건관리 [사회의학]	발표자	장선미 [일반회원]	발표형식	구연
진행상황	연구완료				
<p>1. 목적</p> <p>본 연구에서는 의약분업 초기 시점에서 제도 도입 전후 의사 처방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. 의약분업 실시는 의약품 사용량과 사용의약품의 종류(고가약, 오리지날 사용 등)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 만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의약분업 실시가 의사 처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다.</p> <p>2. 방법</p> <p>의약분업 전후 의사 처방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진료개시일이 2000년 1월(의약분업전), 2000년 12월(의약분업 후)인 건강보험 심사청구자료를 이용하여 의원 외래의 다빈도 상병(급성기관지염, 상기도감염, 위염 및 십이지장염, 본태성 고혈압)을 대상으로 하여 처방내역의 변화를 비교하였다.</p> <p>처방내역의 변화를 나타내는 처방분석지표는 청구건당 의약품 처방건수비율, 투약일당 약제비, 처방당 투약일수, 처방당약제비, 고가약 및 오리지날 처방건수비율 및 금액구성비,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건수비율 등 7가지를 선정하였다.</p> <p>분석은 두시점사이에 의약분업 실시외에 처방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여 이루어졌다.</p> <p>먼저, 두시점에 동일한 보험약가를 적용하여(12월기준) 약가변동의 영향을 통제하였고 질병상태(위중도)의 차이를 고려하여 동일질병내에서 부상병이 없는 건만을 주로 비교하였다.</p> <p>또한 의약품 청구건당 처방의약품 종류수와 처방당 약제비, 투약일당 약제비, 처방당 투약일수 등은 환자의 연령 및 성별, 지역분포를 2000년 12월과 2000년 1월이 동일하도록 한 상태에서 표준화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했으며,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건수비율과 고가약 및 오리지날 제품의 처방건수비율은 Cochran-Mantel haenszel 방법으로 환자의 연령구간, 성별, 지역을 통제하여 산출한 오즈비로 비교했다.</p> <p>3. 결과</p> <p>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.</p> <p>첫째, 처방 의약품 종류수는 대상 질환 모두에서 의약분업전에 비해 의약분업 후에 0.05 품목~0.40 품목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투약일당 약제비는 질병에 따라 의약분업전후 증감양상에 차이가 있었으며 증감율은 -4.39~11.37% 정도였다. 처방당 투약일수는 의약분업 이후 다빈도 상병 모두에서 0.32~4.75 일 정도 증가했으며 특히 만성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의 투약일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</p> <p>둘째, 의약분업 이후 오리지날 및 고가약, 외자계 제품 등과 같은 가격이 높은 의약품의 처방건수비율이 다빈도 상병 모두에서 증가(오즈비가 모두 1 이상임)했다. 또한 의약분업 전후 오리지날, 고가약, 외자계 제품 등이 의원 외래의 건강보험 약제비에서 차지하는</p>					

점유율도 의약분업 전에 비해 8.14%에서 60.91%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셋째, 처방당 약제비는 의약분업이후에 다빈도 상병 모두에서 증가했는데, 증가율은 10.95%에서 48.36%까지 질병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. 이와같이 처방당 약제비가 증가한 데에는 고가약과 같은 가격이 비싼 의약품의 사용과 투약일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넷째, 항생제 처방건수비는 경구용 항생제의 경우 의약분업 전후 질병별로 증감양상에 차이가 있었으나(오즈비 0.96~1.55) 주사용 항생제는 소아감기(오즈비 1.10)를 제외한 다빈도 상병 모두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(오즈비 0.60~0.99). 또한 별도로 주사제 사용 경향을 파악한 결과 의약분업 전후 다빈도 상병 모두에서 주사제 처방건수비율이 감소(오즈비 0.38~0.89)하여, 의약분업이 주사제 사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.

4. 고찰

의약분업 초기시점에서 볼 때 의약품 사용량을 나타내는 지표인 의약품 청구건당 처방의약품 종류수의 감소는 매우 미미한 반면 고가약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의약품 선호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. 따라서 의사 처방에 국한하여 약제비 증감양상을 전망해 볼 때 감소요인보다는 증가요인이 두드러져 향후 약제비 증가가 우려된다. 고가약 등의 사용증가로 인한 약제비 부담에 대비하여 적절한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. 또한 의약분업이후에도 다른나라와 비교할 때 처방의약품 종류수, 항생제 및 주사제 처방건수비가 높은 만큼 이를 적정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.